

통신비 조사방법이 2014년에 변경되어 시계열 비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< 언론 보도내용 >

- 2024. 7. 31., 연합뉴스는 「10년간 월 휴대폰구입비 242% 오를 때 통신 요금은 18.6% 감소」 라는 기사에서
 - “국내 가계에서 매월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를 사는데 들인 돈은 지난 10년새 242% 증가했지만 통신 서비스 이용료는 18.6%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.”라고 보도함

< 통계청 설명 >

- 통신장비 구입비가 242% 증가했다는 보도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.
- 기사의 통신비는 가계부 방식의 가계동향조사에서 작성되고 있습니다.
- 2013년까지는 응답자가 단말기 구입비와 서비스 요금에 대한 구분이 어려워 단말기 구입비의 일부가 서비스 요금에 포함되었습니다. 이를 보완하고자 2014년부터는 이동통신사로부터 자료협조를 받아 통신장비와 서비스 요금의 구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- 참고로 가계동향조사의 개편(2017년, 2019년)에 따라 시계열 비교는 2019년 이후와 비교하는 것이 보다 적절함을 알려드립니다.

담당 부서	사회통계국 가계수지동향과	책임자	과 장	이진석 (042-481-2359)
		담당자	사무관	이주희 (042-481-2213)